

‘3중고’ KIA, 쌍둥이·곰 사냥하며 반전할까

들쭉날쭉 타선·무너진 에이스·불펜까지 말썽 지난주 전패
무너진 방망이·9일만의 등판 팻딘·임기영 ‘감잡기’ 급선무

T 타이거즈 전망대

■ 2018 KBO리그 팀순위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18	14	0	4	0.778	0.0
2	SK	18	12	0	6	0.667	2.0
3	한화	18	10	0	8	0.556	4.0
4	LG	19	10	0	9	0.526	4.5
4	KT	19	10	0	9	0.526	4.5
6	KIA	17	8	0	9	0.471	5.5
7	넥센	20	9	0	11	0.450	6.0
8	NC	19	8	0	11	0.421	6.5
9	삼성	19	6	0	13	0.316	8.5
10	롯데	17	5	0	12	0.294	8.5

‘호랑이 군단’이 반전의 한 주를 보낸다. 4연승으로 시작해서 4연패로 끝난 지난 주였다.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시즌 첫 스윙승을 이뤘던 KIA는 지난주 한화 이글스에 시즌 첫 스윙패를 당하며 위정거렸다. 그리고 1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충격의 역전패를 당하며 패배는 4연패까지 늘어났다.

이후 두 경기는 비와 미세먼지로 치르지 못하면서 지난주 KIA의 성적은 4전 전패였다.

한화 원정에서 1회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웠다. 세 경기 1회 모두 주자가 나갔지만 누구도 홈에 들어오지 못했다. 잔루만 5개가 남았다.

불안하던 4·5선발에선 한승혁이 새로 자리를 잡았지만, 정용운이 탈락했다. 시즌 첫 등판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선발 기회를 얻은 한승혁은 10일 5.2이닝 3실점의 호투로 4선발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정용운이 11일 3회도 버티지 못하고 강판된 뒤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12일에는 믿었던 헛타가 2이닝 7실점의 최악의 피칭을 하며 스윙패가 확정됐다.

타선의 집중력 난조 속 선발진이 흔들렸고, 불펜까지 무너졌다. 13일 롯데전에서 양현종이 9개의 탈삼진을 뿜아내는 등 7이닝 무실점으로 연패 탈출에 앞장섰지만 불펜이 말썽이었다.

타선의 부진 속 KIA는 KBO리그 역사상 첫 4연승 희생번트 기록까지 만들어가면서 연패 탈출을 위한 점수를 만들어갔

만, 불펜이 4점의 리드를 지켜주지 못했다. 4-1로 앞선 8회초 2사 만루에서 급한 불을 끈 김세현이 9회에는 앞선 이닝과 다른 공을 던지면서 경기는 4-8 역전패로 끝났다.

KIA는 비와 미세먼지로 두 차례나 등판이 연기된 팻딘을 가장 먼저 내세워 새로운 한 주를 연다.

KIA는 17일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LG 트윈스와 주중 3연전을 벌인다. 이번 시리즈는 시즌 첫 리턴매치이자 설욕전이다.

KIA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잠실구장에서 LG와 시즌 첫 대결을 벌였다. KIA 마운드의 자존심 헛타-양현종-팻딘이 순서대로 출격했지만 결과는 1승 2패, 무점수였다. 특히 1일에는 9회초 2사 만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LG의 끝내기 세라모니를 지켜보아야 했다.

문제는 ‘감(感)’이다. 팻딘은 3경기에 나와 18이닝 7실점으로 3.5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지난 15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던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 앞서 KIA 팻딘이 몸을 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LG와의 등판에서 5실점을 하면서 가장 좋지 못한 성적을 냈지만 정교함을 더해 두 번째 시즌을 순조롭게 열었다. 두 번이나 등판이 미뤄졌다는 게 변수다. 14일에 맞춰 컨디션이 끌어올렸던 팻딘은 17일이 되어서야 네 번째 등판을 소화하게 됐다. 지난 8일 경기에서 이어 무려 9일 만의 등판이기도 하다.

우여곡절 마운드에 오르게 된 팻딘이 일

만들어내지 못했다. 0.235의 타율에 머물고 있는 이명기의 기록도 고민거리다. 나지완도 타율 0.245에 그치는 등 타선 곳곳에서 힘이 빠진다. 15경기 연속 안타 행진 중인 안치홍의 선발 라인업 복귀 여부도 관심사다. 안치홍은 지난 13일 경기를 앞두고 목에 담즙체를 호소하면서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이후 두 경기 라인업 작성 시에도 안치

홍의 이름은 제외됐다. 안치홍의 컨디션에 따라서 전체적인 타선이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LG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치르는 KIA는 주말에는 잠실로 올라가 ‘난적’ 두산 베어스를 상대한다. 두산은 올 시즌에도 최수봉 야구를 선보이면서 14승 4패로 1위 질주를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92경기만에 100만 관중 돌파

프로야구가 92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KBO리그는 지난 15일 잠실, 문학, 고척, 대전 등 4개 구장에 총 5만3436명이 찾으면서 시즌 92경기 만에 104만9803명(평균 1만141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일 경기수와 비교하면 4% 증가했다. 이날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미세먼지로 인해 취소되는 등 시즌 초반 꽃샘추위, 강풍 등 날씨 악재가 있었지만 2018 KBO 리그는 경기당 평균 관중 1만1411명을 기록하고 있다. KIA와 kt 위즈의 개막 2연전이 열린 지난 3월 24일과 25일 연속 매진이 기록되는 등 15일 현재 전체 92경기 중 10경기가 매진됐다. 지난해 동일 경기수 기준으로 3경기가 매진됐던 것과 비교하면 시즌 초반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구단별로는 SK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SK는 홈 12경기에 지난해 8만8879명에서 무려 81%가 증가한 16만1240명이 입장해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관중 수와 증가율을 기록했다. LG는 홈 9경기에 13만 7413명이 야구장을 찾아 뒤를 잇고 있다. 팀 순위 공동 4위에 오르며 달라진 힘을 보여준 kt는 관중수에서도 상승세다. kt는 15일 현재 홈 5경기에 지난해 대비 50% 증가한 7만4137명의 관중이 입장하면서 SK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관중 증가율을 보인다. KIA는 3차례 매진 포함 9경기에 12만 1647명의 관중을 불러들였다. 지난해 동일 경기수를 기준으로 11만3578명에서 7% 증가했다. /김여울기자 wool@



한국의 김시우(왼쪽)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버타운 골프 링크스(파71·7081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헤리티지 대회 마지막 날 연장 세 번째 홀인 17번 홀(파3)에서 패한 뒤 우승자인 일본의 고다이아 사토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오늘 시즌 2승 도전

선발진 탈락 위기에서 눈부신 호투로 부활한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여세를 몰아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상대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라이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며, 장소는 류현진에게 ‘약속의 땅’이나 다름없는 팻코 파크다. 류현진은 17일 오전 11시 10분(한국시간)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전에서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올해 첫 등판이었던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3.2이닝 5피안타 5볼넷 3실점으로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11일 오슬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는 6이닝 동안 단 1안타만을 허용하며 8탈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수확했다. 류현진은 구속과 제구력, 경기 운영 모두에서 전성기 시절 못지않은 뛰어난 투구로 여전히 빅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걸

입증했다. 볼넷을 단 1개만 허용한 가운데 스트라이크 존 모서리를 찌르는 투구로 타자의 방망이를 휘유했고 지난해 장착한 컷 패스트볼(커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타자 몸쪽을 찔렀다. 류현진에게 샌디에이고전 등판은 세 가지 호재가 있다. 류현진은 3월 첫 등판 이후 우천 취소와 알렉스 우드의 장염 때문에 두 차례나 등판 일정이 바뀌어 8일 만에 마운드에 올랐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5일을 쉬 뒤 마운드에 오른다. 또한, 팻코 파크는 류현진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구장이다. 류현진은 팻코 파크에서 3차례 선발로 나서 20이닝을 던졌고 2승 평균자책점 0.90을 기록했다. 샌디에이고 역시 자신 있는 상대다. 류현진의 샌디에이고전 통산 성적은 7경기 42이닝, 4승 1패 평균자책점 2.57이다. /연합뉴스

‘연장 패배’ 김시우 PGA 준우승

RBC 헤리티지 세 번째 연장서...통산 3승 불발

한국 골프 기대주 김시우(23)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헤리티지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김시우는 1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버타운 골프 링크스(파71·708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꾸며 이븐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김시우는 고다이아 사토시(29·일본)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들어갔다. 김시우는 18번 홀(파4)에서 열린 연장 첫 번째, 두 번째 홀에서 파로 비긴 뒤 17번 홀(파3)에서 열린 연장 세 번째 홀에서 버디에 실패해 먼저 6m 거리의 버디 퍼팅을 잡아넣은 고다이아에게 우승을 내줬다.

아쉬운 마지막 날이었다. 루크 리스트(미국)와 함께 이인 폴터(잉글랜드)에 1타 뒤진 12언더파로 출발한 김시우는 2번 홀(파5)에 첫 버디를 낚으며 공동 선두로 뛰어올랐다. 이어 3번 홀(파4)을 파 세이브하며 1타씩을 잃은 폴터, 리스트를 밀어내고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폴터와 리스트가 10번 홀(파4)과 11번 홀(파4)에서 각각 보기를 하면서 두 타차로 달아나는 등 우승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했지만 후반 들어 샷과 퍼팅이 조금씩 흔들렸다. 12번 홀(파4)에서 티샷 실수로 첫 보기를 하는 사이 7언더파 공동 12위로 출발했

던 고다이아가 15번 홀까지 6타를 줄이며 공동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고다이아가 이미 12언더파로 경기를 마친 상황에서 김시우는 16번 홀(파4)에서 1.5m가량의 버디 퍼팅을 놓쳤고, 17번 홀(파3)에서는 2m가 채 되지 않는 파 퍼팅에 실패하며 고다이아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김시우는 마지막 홀 18번 홀(파4)에서 잡은 버디 퍼팅의 기회를 놓치면서 연장에 들어갔다. 안병훈(27)은 최종합계 9언더파 275타로 공동 7위에 올랐다. 지난 2월 혼다 클래식에 이은 이번 시즌 두 번째 ‘톱 10’이다. 김민휘(26)는 이날 하루 5타를 잃어 공동 50위(1언더파 283타), 최경주는 이븐파 284타 공동 55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강풍·우박·영하 추위

ML도 6경기 취소

메이저리그가 ‘재키 로빈슨 데이’로 지정된 16일(한국시간), 16경기 중 더블헤더 포함 6경기가 날씨 탓에 취소됐다. 오타니 쇼헤이(24·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등판할 예정이던 에인절스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전도 열리지 않았다. 이날 캔자스시티 홈구장 미국 마주리주 캔자스시티 카우프먼 스타디움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 체감온도가 영하 6도까지 떨어졌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경기 시작 25분 남겨두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경기는 6월 26일에 열린다. 오타니는 18일 캘리포니아주 에너하임 에인절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에 선발등판한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메리카 파크에서 예정된 뉴욕 양키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더블헤더도 모두 취소됐다. 강한 추위와 우박 때문에 경기를 치를 수 없었다. 양 팀은 6월 5일 더블헤더를 치른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 필드의 시카고 화이트삭스-미네소타 트윈스전도 눈보라를 동반한 추위로 취소됐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도 추위를 동반한 비가 내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를 치르지 않고 경기장을 떠났다. 오승환(토론토 블루제이스)도 날씨에 영향을 받아 휴식이 길어졌다. 토론토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이를 연속 비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면서 오승환은 나흘째 휴식했다. /연합뉴스